1950~1999년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 소개

인천화교협회 부회장 주회풍

1. 자료의 중요성

인천화교협회(仁川華僑協會)는 19세기 말부터 형성된 인천 화교사회의 중심 기관으로, 다양한 행정·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왔다. 1차 아카이브 작업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여, 인천 화교사회의 초기 경제·사회·문화적 형성과 중화회관 및 화상상회의 활동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냉전 체제와 한중 수교 이전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화교사회가 겪은 변화와 대응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이후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50년대 이후 인천 화교사회는 한국전쟁과 냉전 체제, 한중 수교 이전의 정치적·사회적 격동 속에서 재한화교의 법적 지위와 생활 기반이 불안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화교협회가 축적한 자료는 단순한 행정 기록을 넘어, 당시 화교사회의 사회문화적·정치적 활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학술적·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재한화교 2세와 3세가 대만 입국을 위해 제출한 각종 신청서류와 협회 내부 행사 기록은 화교사회의 법적 정체성과 사회적 활동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일차 사료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2. 자료의 구성과 시기별 특징

2차 아카이브의 핵심 자료인 '대귀권종(待歸卷宗)' 서류철은 1950년대부터 인천화교협회가 재한화교의 입국·신원·행정 업무를 대행하며 정리·보관한 문서철이다. 주요 문서로는 입국신청서, 신원증명서, 담보서, 분묘개장허가신청 통보, 대만 영사부 및 인천직할시 등 행정기관과의 교신문서가 포함된다. 또한 협회의 내부 활동을 보여주는 설날 음복(飮福)·단배(團拜) 안내문, 회비면제신청서, 국경일 행사 통지문 등도 수록되어, 행정적 기능뿐 아니라 지역 화교사회의 사회문화적 일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일기(日記)' 서류철은 1953년부터 1990년까지 인천화교협회에서 작성된 협회 일지 제2권으로, 협회의 대소사와 일상 업무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 현존 자료를 통해 1953년 인천화교자치회 시절부터 1990년대 말까지 이어진 연속 기록임이 확인되며, 협회의 장기적 운영과 지역 화교사회의 일상적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작성된 '발문부(發文簿)', '수문부(收文簿)', '인천화교반업협회규약(仁川華僑飯業協會規約)' 등의 자료는 발송·수신 기록, 조직도, 청원서, 요식업 신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협회의 행정 운영 체계와 대외 교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특히 1981년부터 1983년 사이 제작된 '선전권종(宣傳卷宗)'에는 국민당 관련 선전 문건, 반공 청년 조직 명단, 국경일 행사 계획, 장개석 서거 기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인천 화교사회의 정치·이념적 활동과 청년 조직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1980~1990년대 자료는 대만 총통 장경국 서거 관련 문서, 해외 우수 청년 선발 관련 서한, 대만 해군 환영 행사 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료는 한중수교 전후 화교사회가 직면한

법적·사회적 변동과 이에 대한 협회의 대응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1962년부터 작성된 호구책(戶口冊) 자료는 당시 인천 화교 인구 구성과 행정 구역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교사회의 조직 체계와 인구 변동을 연구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3. 자료를 통해 본 인천화교협회의 행정적·사회문화적 기능

인천화교협회는 1950년대 이후 재한화교의 국적과 호적 관리를 비롯하여, 대만 정부와의 공식 행정 연락, 그리고 화교사회의 사회문화적 행사 운영 등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 기관이다.

첫째, 행정 기능 측면에서 협회는 대만 입국 신청서 접수·전달, 보류 서류 관리, 출생·사망 신고, 전입·전출 기록 등 기본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귀권종' 문서철은 제출된 신청서류의 승인 여부나 회신을 대기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며, 당시 협회의 행정 조직과 업무 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둘째, 사회문화 기능 측면에서는 설날 음복, 단배 행사, 국경일 기념행사, 청년·학생 교육 및 선발 관련 문서가 수록되어 화교사회 내 공동체 생활과 문화적 실천 양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대만 해군 방문 환영 행사에서는 인천화교학교 학생들이 무대 연출과 관악대 연주를 담당하고, 주요 화교 식당 조리사들이 만찬을 준비하는 등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치·이념 기능 측면에서는 국민당 및 반공 청년 조직 관련 자료를 통해, 화교사회가 냉전 체제 속에서 수행한 정치적·이념적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인천화교청년회는 중국청년반공구국총회의 한국 지부로 활동하며, 청년 계몽운동과 선전 활동을 수행하였다.

4. 법적 지위와 제도적 맥락

화교등록증(華僑登錄證)은 1955년부터 발급되어 재한화교의 체류 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였다. 단순한 체류증명서가 아니라 중화민국 정부의 반공·애국 정신을 상징하며, 매년 연장하고 협회를 통해 발급 및 갱신이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화교들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의 제한 사항, 예컨대 토지 소유 제한, 상업 활동 규제, 귀화 절차의 어려움 등과 맞물려 화교사회의 경제적 활동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화교등록증은 일반 외국인등록증으로 통합되었지만, 과거 자료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화교의 법적 지위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핵심 사료로 평가된다.

5. 학술적·문화사적 가치

본 자료는 인천 화교사회가 겪은 법적·행정적 현실, 사회문화적 생활, 정치적 참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일차 사료이다. 또한 인천 화교사회가 한국 사회 내에서 자치와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해 온 역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1950~1990년대 인천화교협회 소장 자료는, 개항기 이후 형성된 인천의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한 세기 넘게 이어진 화교사회의 역사적 지속성과 적응 전략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다.